

NEIGHBOR

Issue 221

International Art, Design and Fashion



APRIL SPECIAL

Rethink, Redirect, Repurpose

IWC
SCHAFFHAUSEN

왜 다시 박서보인가

EDITOR
SEOL MI HYUN

PHOTOGRAPHER
PARK WOO JIN

한국의 단색화가 세계 미술시장에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흘러간 미술 사조로 치부된 단색화의 부활을 주도한 이는 팔순을 훌쩍 넘긴 박서보다. 그런데 정작 그는 너무도 덩덤하다. 오히려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안 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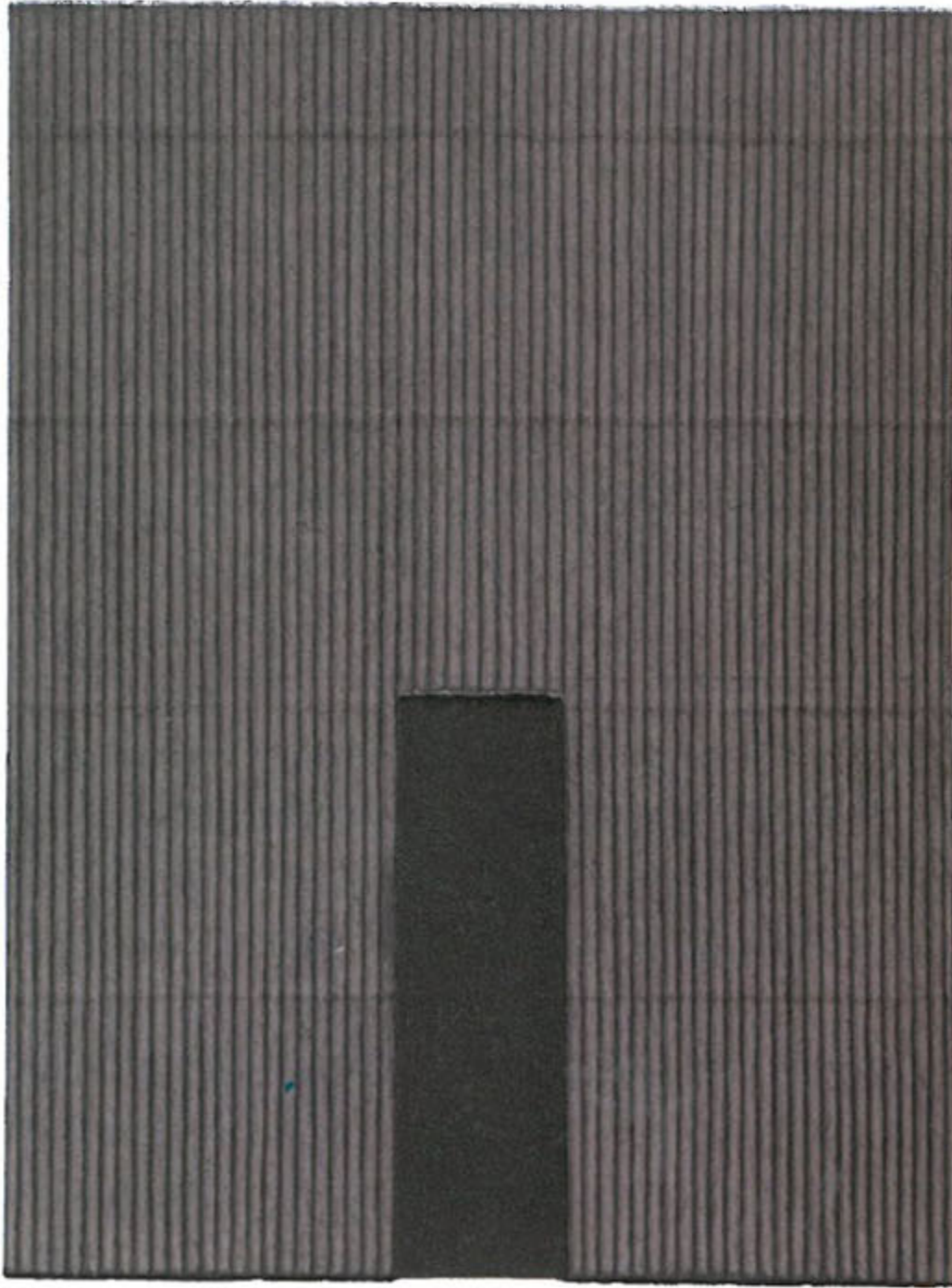
박서보 화백의 작업실인
서보파운데이션 얼마
전 작업실의 2층 공간을
수장고로 리뉴얼했다.



성산동에 위치한 박서보 화백의 작업실, 서보파운데이션은 아침부터 어수선한 모습이다. 기존 작업실의 2층 공간을 수장고로 확장 리뉴얼하는 대대적인 공사가 이제 막 끝난 터였다. 예사롭지 않은 그의 스타일에서 짐작되듯 수장고 역시 보통의 어두컴컴한 공간이 아니다. 그는 천장의 일부를 유리로 마감해 부드러운 자연 채광을 수장고 안으로 끌어들었다. “유리에 자외선 차단 처리를 하고 거기에 은은한 한지를 붙였지. 자연 채광이 들어오니 참 좋아.” 유리에 한지를 붙이다니, 역시 박서보답다는 생각이 든다. 바뀐 수장고엔 CCTV도 꼭 설치할 거란다. 사실 그가 수장고에 유독 신경을 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서보파운데이션 이전, 그의 작업실은 안성에 있었다. 그런데 한 차례 화재가 발생했고, 그의 초기 작업인 연필 묘법 320점이 타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도둑을 맞기도 했다. “내 손 떠나면 나하고 인연 없어. 조사해봤자, 찾지도 못해, 그냥 ‘잘이나 살아라’ 하고 말았지.”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는 벌써 20여 년째 자신의 작품에 관한 정보를 기록으로 남긴다. 작품의 제목부터 언제 제작됐는지, 하물며 수선에 대비해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까지 꼼꼼히 적어놓는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아직도 본인이 손수 챙긴단다. “이렇게 하면 남보다 실수가 훨씬 줄지. 나는 적당히는 안 살아요.” 그의 꼼꼼함은 비단 작품 정보를 기록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책장에는 자신이 기사화됐던 자료와 지난 50여 년간 지인들로부터 받은 편지들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야. 훗날 역사를 기억해야 할 증거물로 다 모아뒀어. 근데 요즘엔 진짜 재미없어. 다들 이메일로 쓰고, 내가 제일 경멸하는 게 컴퓨터로 입력된 연하장이야. 그런 건 받자마자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지.” 쓰레기통에 처박혔을 그 어느 누군가의 연하장처럼 가슴이 뜨끔해지고 만다. 빛바랜 편지, 심지어 편지봉투까지 차곡차곡 마치 기억을 저장하듯 그만의 타임머신 속에 담아두었다. 1979년 1월 19일, 이우환 화백의 와이프에게서 온 연하장을 손수 읽어주며 그가 흐뭇하게 웃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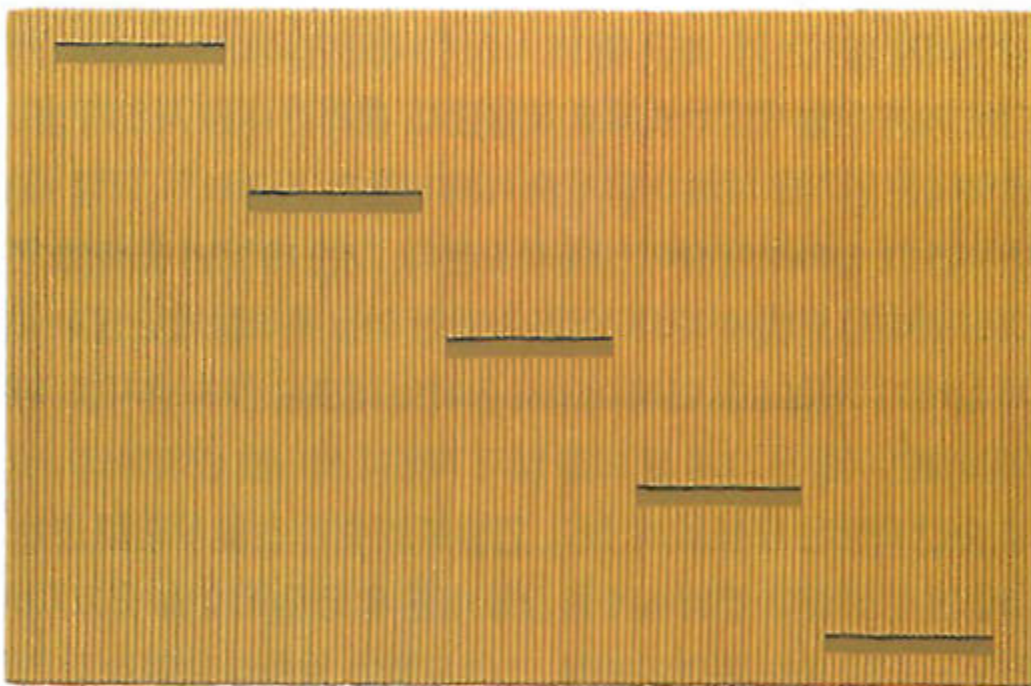
단색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서보, 요즘 그만큼 많이 회자되는 예술가는 없을 듯하다. 작년 말 파리 페로탱 갤러리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얼마 전엔 홍콩 소더비가 주최하는 〈아방가르드 아시아〉 특별전에 초대됐다. “3박 4일 홍콩에 다녀왔어. 완전 KO야.” 3월 27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방가르드 아시아〉 특별전을 위해 막 홍콩에 다녀온 그는 많이 지쳐 있었다. 박서보, 이우환, 하종현을 필두로 한 한국 단색화와 일본을 대표하는 구타이 미술, 중국 미술까지. 아시아 미술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전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시아, 특히 한국 단색화에 대한 세계 미술시장의 관심을 입증하는 자리였고, 박서보 역시 많은 러브콜을 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5월엔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대된 상태. 이러니 그가 지친 건 당연하지 않겠는가.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단색화는 미술의 한류라 칭해도 좋을 만큼 세계 미술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흘러간 미술 사조에 불과했던 단색화에 불어닥친 인기를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박서보의 ‘묘법 描法’ 시리즈에 어쩌면 그 실마리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 그는 1967년 첫 묘법 연작을 선보였다. 그의 위대한 묘법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이는 흥미롭게도 당시 화백의 세 살배기 아들이다. 아직 어려서 공책의 네모난 칸에 글자를 맞춰 쓰기가 어려웠던 아들은 그게 잘 되질 않자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더니 이내 내려놓더라. 그 순간 화백은 무릎을 탁 쳤다. 연필로 비슷한 선을 무한히 긋는 그의 초기 묘법은 그렇게 탄생했다. 캔버스에 물감을 바른 후 연필로 선을 긋고 다시 물감으로 지우고 선을 긋는 행위의 반복. 그의 묘법은 일종의 수행과 같은 무한한 인내가 필요하다. 1980년대 이후 본격화된 그의 후기 묘법에는 한지가 화폭을 대신한다. 일단 두꺼운 한지를 두 달쯤 물에 담가둔다. 그런 다음 젖은 상태의 이 한지를 캔버스 위에 여러 겹 발라서 고정시킨다. 팽팽해진 한지 위에 격자 눈금을 만들고 손가락, 쇠붙이 등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인 선긋기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 어느 순간, 그의 눈앞엔 발의 이랑과 고랑을 닮은 풍경이 펼쳐진다. 마치 어느 수행자가 걸어온 고행의 길 같기도 한. 되풀이되는 격자 눈금의 미묘한 흐름. 박서보는 이 속에 침의 공간 하나를 마련해놓았다. 격자 눈금 속에 들어선



Ecriture(描法) No. 000105, 2000,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130×97cm

1 물감 하나도 색깔별로 깔끔히 정리되어 있는 그의 작업실.
2 서보파운데이션의 1층 작업실. 이곳저곳 흰, 색 바랜 물감의 흔적마저도 아름답다.



Ecriture(描法) No. 110830, 2011, Mixed Media with Korean Hanji Paper on Canvas, 130×200cm



1
2





1
2



네모난 공간이 그것이다. 그의 네모 공간은 격자의 눈금을 정지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격자의 눈금을 추적할 수 있는 심의 공간을 제공한다. 초기 묘법이 팽팽한 긴장감이었다면 후기 묘법은 그것을 잠시 내려놓기를 권하는 것이다. “단색화는 추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파고든 거야. 서구의 모노크롬(미니멀리즘)과는 분명 다른 정체성이 있지.” 그는 그것을 ‘비움’이라 했다. 서구의 모노크롬이 담아내지 못한 한국 단색화의 미학. 세계 미술시장은 그 점에 주목한 것이리라. 1970년대의 단색화. 그것은 평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고 독자적이며, 무엇보다 시대를 품고 있었다. 그 중심에 박서보가 있었다.

“나는 안 팔아. 그럴 이유가 없어. 판들 뭐해?” 세계적인 경매 회사, 미술관, 솔한 컬렉터가 러브콜을 보내와도 그는 흔들림이 없다. 그에게 그림 한 점을 더 파는 일은 그리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그저 쉬지 않고 자신의 일에 매진하면 그뿐. “안 팔리던 것이 잘 팔린다고 그 당시 70년대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점을 경계해야 돼.” 단색화의 인기로 작품이 잘 팔린다고 해서 과거의 자기를 모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과거는 갔고, 미래는 몰라

꼼꼼하기 이를 데 없는 완벽주의자, 하루 14시간씩 놀 새도 없이 그림만 그렸던 일중독자. 그에겐 ‘수집’이라는 또 다른 재능이 있다. 그의 옷장 한 칸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페도라도 그중 하나다. “이건 80만원짜리인데, 주전자의 김을 빼서 모양을 다시 만들었어.” 에과도르, 이탈리아 등지에서 산 페도라를 하나하나 꺼내 보이며 모자에 담긴 스토리를 풀어놓는다. 그는 모자 하나도 그냥 쓰는 법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태를 손봐서 쓴다. 페도라만 해도 챙이 일자로 쪽 뺀 건 싫단다. 그러니 어딘가에서 그가 모자를 쓰고 나타났다면 꼭 눈여겨보길 바란다. 분명 챙이 위로 말린 라운드 형태일 터이니. “이 안경은 디자인을 직접 의뢰했는데 6개월이 걸렸어. 안경테는 거북이 등뼈로 만든 거야. 1등급 거북이 등뼈는 공기 부분이 노래. 근데 요즘은 거북이를 못 잡게 해서 이제 못 만들어.” 안경을 비롯한 패션 액세서리부터 만년필, 카메라, 18세기의 도자기, 고가구 등 수집광적인 그의 성향을 읽을 수 있는 흔적이 그의 집과 작업실 구석구석에 있다. 그중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이 있다.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붓이다.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지면 붓글씨를 써볼 참이야. 지금도 손이 좀 떨리긴 하지만, 그 떠는 맛의 붓글씨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 그가 준비 중인 다음 작업은 어쩌면 이 붓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기존 묘법과는 확연히 다를 테고. 단색화의 치수는 인기 따위야 저 멀리 제쳐두고, 그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3월 말부터 4월 초에는 제주도에 다녀오려고, 작업실 앞에 매화를 심어놨는데, 아직 못 봤어.” 제주 저지리 예술마을에 가면 그의 또 다른 작업실이 있다. 머리도 식히고 작품도 구상할 겸, 2005년 이곳에 40평 규모의 작업실을 마련했다. 인근엔 김창열 화백의 미술관도 오픈할 거란다. “그이는 항시 나는 오래 못 가, 죽는 시늉을 해. 너는 그러기 때문에 틀렸어~ 이놈의 자식아.” 자신의 나이를 탓하는 김창열 화백에게 그는 따끔하게 충고를 했단다. 그리고 덧붙인다. 자신은 아직도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고민한다고.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95%의 일을 하고 나머지 5%의 할 일은 남겨뒀어.” 팔순이라는 나이에 갇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건 박서보가 아니다. 남은 5%의 할 일이 아직 그에겐 남아 있다.

‘그 가시덤불 길을 내가 다 스스로 선택해서 거길 걸은 거예요. 옛날에 하던 내 일 속에 내가 매몰되어 있다는 건, 즉 내가 변화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과거의 내가 성공한 거에 매달려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변화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이내믹 듀오 개코의 솔로 앨범 중 ‘과거는 갔고, 미래는 몰라’의 인트로 부분이다. 이 내레이션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서보 화백. 그는 자신에게 걸려오는 휴대폰을 받지 않고 끝까지 벨소리를 들려주었다. “이 노랫말이 내 얘기야.”

굴하지 않는 깨끗한 열정, 모든 걸 흡수하는 한지와 같은 넉넉함, 날 선 듯 꼭 차 보이지만 비움을 통한 치유가 있는 예술. 박서보의 지난 예술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의 묘법이, 단색화가 잠시 잠깐의 유행이 될 수 없는 이유다.

1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그의 검지손가락엔 늘 보라색 수정 반지가 끼워져 있다. 그리고 그의 지난 예술을 말해주는 듯한 손.

2 옷장 한 칸을 페도라로 채울 만큼 모자 사랑이 남다른 박서보. 자신의 모자를 켜켜이 눌러 쓴 채 옷은 그에게서 ‘개구진 소년’을 보았다.